

Seven signs – Sermon 5

Title: “The best picnic ever”

The Fourth sign: Jesus feeds the multitudes

Scripture: John 6:1-14

Date preached: July 10th 2022

Scripture: John 6:1-14

1 After these things Jesus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2** Then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His signs which He performed on those who were diseased. **3** And Jesus went up on the mountain, and there He sat with His disciples. **4** Now the Passover, a feast of the Jews, was near. **5** Then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eeing a great multitude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6** But this He said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7** Philip answered Him, “Two hundred denarii worth of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that every one of them may have a little.” **8** One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id to Him, **9** “There is a lad here who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what are they among so many?”

10 Then Jesus said, “Make the people sit down.”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about five thousand. **11** 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to those sitting down; and likewise of the fish, as much as they wanted. **12** So when they were filled,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so that nothing is lost.” **13** Therefore they gathered *them* up,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of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were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14** 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sign that Jesus did,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1 그 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3**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5**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7**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 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었다. **9**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 명쯤 되었다. **11**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12**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둬 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14**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Jesus' third miracle. It was of course the healing of the lame or paralysed man at the pool. Let us very briefly review what happened.

Jesus had travelled from the region of Galilee up to Jerusalem for one of the Jewish feasts. Under the law of Moses Jewish men were expected to attend in person three feasts during the year. John does not tell us which particular feast this was. Whilst in Jerusalem Jesus visited the pool of Bethesda. This was a popular washing, bathing and swimming pool located just north of the temple and Antonia Fortress. It also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place in which amazing healings took place. The belief was that at certain times an angel stirred the waters and then whoever got into the waters first would be healed. Some claim that this was just a superstition or a legend, but as I said last week reason and logic tells us otherwise. Ancient people were not stupid. No one would visit a place for healing in which no one ever received healing. So it is my belief that God through His grace was at times using this pool to heal those with faith.

One such man hoping for a miraculous healing was the lame man. H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He had come along with many other sick people to the pool in the hopes of being healed. The problem he had however was that his impairment made him slow. Once the waters were stirred, or the underground spring bubbled up he couldn't get to the waters before other people. Jesus approached him and knew supernaturally about his condition. He asked the man if he wanted to be made well. Instead of answering plainly the man launched into a series of reasons why he had not been healed. Jesus resolved the issue once and for all by telling the man to,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the man instantly rose to his feet. His muscles, that for so long had been unused were made strong. When the Lord Jesus heals it is full and complete.

Following the healing Jesus departs and the healed man is approached by the Jewish authorities. We might imagine that they are amazed and astounded by this miracle. We might think that they want to examine the healed man and praise God for His grace. Sadly this was not what they wanted to do. They were more concerned that their man-made laws regarding the Sabbath had been violated. They wanted to find the man who had dared to heal on the Sabbath and commanded another man to carry his bed. The healed man does not know Jesus' identity.

Later Jesus finds the man and cautions him about again falling into sin. The implication of Jesus' words are that this man's condition came about as a result of his sin. As I said last time this is not always the case. We should be careful, and not assume that every sickness or ailment is a result of sin. After Jesus departed the man went and told the authorities that it was Jesus who had healed him. How hard hearted and ungrateful he was.

The miracle reminds us of several important things. Firstly that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to accomplish. Secondly it reminds us that time is no limitation to God's power. Perhaps the lame man after 38 years thought he would never be restored to health. But God can work at any time to bring healing or restoration. Thirdly it reminds us of our dependence on Christ. We might take all the steps we think are necessary but without Christ we are nothing. Finally it reminds us that Christ is the giver of life. Without Him we are lost and dead in our sins.

Today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fourth sign; Jesus feeding the multitudes. Incidentally this is the only miracle that is recorded in all four gospel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못에서 절뚝발이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절기 중 하나를 위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 남자들은 일 년에 세 번의 축제에 직접 참석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축일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베테스다 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원과 Antonio Fortress 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인기 있는 세탁, 목욕 및 수영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나서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미신이나 전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주에 말했듯이 이성 과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치유받지 못한 치유의 장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때때로 이 연못을 사용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셨다고 믿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절름발이였습니다. 그는 38 년 동안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낯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많은 병자들과 함께 못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문제는 장애로 인해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휘젓거나 지하 샘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초자연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잘 되고 싶은지 물었다. 그 사람은 명쾌하게 대답하는 대신 그가 치유되지 않은 일련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남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의 근육이 강해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고치실 때 그것은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병 고침 후에 예수께서 떠나시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유대 당국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적에 놀라고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인공적인 법이 위반되는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감히 병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침상을 옮기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정체를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함축은 이 사람의 상태가 그의 죄의 결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며 모든 질병이나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그 사람이 가서 권세자들에게 고하여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말하나라.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마도 38 년이 지난 그 절름발이는 자신이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길을 잃고 죽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표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덧 붙여서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1 After these things Jesus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We pick up the action after an undisclosed period of time has passed. Jesus had left Judea and travelled back up to Galilee. As I have said before John was very selective in His recording of the life of Jesus. There are many events that he did not include. We can read about some of these events in the other gospels. We know for example that during this time Jesus preached the sermon on the mount (Matt 5-7) and gave the parables of the Kingdom (Matt 13).

We are told here that Jesus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This means that he travelled from the west coast (the largely Jewish area) to the east coast (the largely gentile area). The body of water that

today we most often call the Sea of Galilee has had several names throughout history. In Old Testament times it was called Kinnereth. This is the Hebrew word for harp and this reflects that the lake is harp shaped. Later it was also known as the Lake of Gennesaret. In 20 AD Herod Antipas began building a city on the western shore. He named the city Tiberias after the Roman Emperor at the time; Tiberius Caesar Augustus (ruled 15-35 AD). Over time the lake began to be known as the Sea of Tiberias. Probably it took some time for common people to use this name, but remember John's gospel was the last to be written. It was written towards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when it seems that most people called the lake the Sea of Tiberias. Now that we have set the scene let us move on.

공개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조치를 취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그가 포함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산상설교(마 5-7)와 천국의 비유(마 13)를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가 서해안(대부분 유대인 지역)에서 동해안(대부분 이방인 지역)으로 여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 물은 역사를 통틀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키네렛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하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이며 이것은 호수가 하프 모양임을 반영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게네사렛 호수로도 알려졌습니다. 서기 20 년에 헤롯 안티파스는 서쪽 해안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스(Tiberias)라고 명명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재위 서기 15-35 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수는 티베리아스 바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호수를 티베리아스 바다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1 세기 말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장면을 설정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Then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His signs which He performed on those who were diseased. 3 And Jesus went up on the mountain, and there He sat with His disciples.

We read here about the crowds reaction to Jesus. Jesus had wanted to get away and rest but the crowds continued to flock after Him. We might imagine that some were drawn to His words and teaching. Here after all was a man who spoke like no other rabbi had ever spoken before. However the vast majority were there for the spectacle. They wanted to see the signs and miracles. John has not included them in his account but it seems that Jesus was continually healing the sick and diseased as He travelled around.

At one point John tells us that Jesus went up on the mountain. Clearly He wanted some time to rest, recuperate and be in prayer with His disciples. He had recently received the news that John the baptist had been beheaded. This news would have greatly upset Him.

Only John tells us that this sign took place on a mountain. Today this area is known as the Golan Heights. I had the pleasure of visiting this area when I visited the Holy Land. It is a stunningly beautiful part of Israel.

So let us picture this scene. Jesus on this beautiful grassy mountain surrounded by His disciples.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반응에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떠나 쉬고 싶었지만 군중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과 가

르침에 이끌렸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랍비도 전에 한 적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광경을 위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기록에 그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두루 다니실 때 병든 자와 병든 자를 지속적으로 고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쉬고 회복하며 기도할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는 최근에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분을 크게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오직 요한만이 이 표적이 산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골란 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성지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그려보자.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풀밭 위의 예수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 Now the Passover, a feast of the Jews, was near.

John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tell us that these events took place around the Passover. This is John's second mention of the Passover. The first you will remember was when Jesus went to Jerusalem and cleared the temple (John 2). Hopefully you remember me saying that when John specified the particular feast it was because it had some connection to the sign or miracle. This is certainly the case here.

Passover is a celebration of the Jewish exodus from Egypt. It is held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of Nisan, the first month of spring. It was, and still is a time for God's people to remember how God has blessed and provided for them. Firstly, they remember God's mercy in sparing the lives of their firstborn whilst still in Egypt. Secondly they recollect how God provided for their needs during the 40 years of wilderness wanderings. The manna or "bread" God provided in the desert gave sustenance on a temporary basis. It was not designed to provide all that the people needed for all time. It was then a foreshadowing of a future time when God would fully provide for His people's needs. It was looking ahead to the Messiah, the Lord Jesus Christ. Jesus is the bread of life. Those who feast on Him are fully sustained forever. Let us read on.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이 유월절 전후에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유월절에 대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청소하실 때였습니다(요한복음 2 장). 요한이 특정한 절기를 명시했을 때 그것이 표적이거나 기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봄의 첫 번째 달인 니산월의 15 일에 거행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할 때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직 이집트에 있는 동안 장자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40 년 동안의 광야 방랑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신 만나 즉 "빵"은 일시적으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실 미래의 시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흠족히 취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완전히 유지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5 Then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eeing a great multitude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6 But this He said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Jesus' peace and quiet was not destined to last for long. In the distance he sees a large crowd of people approaching. Our Lord never tired of ministering to people. Perhaps in His human flesh He wearied, but He knew that His time of ministry was short. He had much to accomplish in a short span of time.

His concern here, in this isolated place as the day drew to a close was how these people would be fed. Of course we should not read this verse and think that Jesus was puzzled or confused. As though He had no idea how to solve this problem. He knew exactly what He was going to do. He is not only going to perform an amazing sign but also use it as a teaching opportunity for His disciples. Jesus then directs a test question to Philip. The question is where it would be possible to buy bread for all the people.

Why did Jesus direct His question to Philip? Well Philip's home town was Bethsaida (John 1:44). This was probably the closest town. Philip was a local, this meant he would know where the nearest "Paris Baguette" was located.

How was this a test for Philip? Well Philip had already seen Jesus do many amazing things. So perhaps Jesus wants to see how Philip will respond. Or maybe Jesus just wants to highligh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so that when He solves it it will appear even more impressive. Let's see how Philip responds.

예수님의 평화와 고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멀리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역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성취해야 할 것이 많았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이 외딴 곳에서 그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어리둥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시험 질문을 하십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의 고향은 벳새다였습니다(요 1:44). 이곳은 아마도 옷장의 도시였을 것이다. 필립은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파리바게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립에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빌립은 이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7 Philip answered Him, "Two hundred denarii worth of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that every one of them may have a little."

Philip gives a very practical answer. The problem from his perspective has two parts that need to be resolved. Firstly, that they would need a great deal of money to buy the bread needed. His estimate is that they would need at least two hundred denarii. A denarius was a day's pay for a common working man. So 200 denarii represents about 8 months of work. Even this huge amount of money would only provide each person with a little.

Secondly where would they find a place that had such a large quantity of bread for sale.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giant bakeries or chain bakery stores in those days.

Philip's answer is I suppose the natural way we think about things. We put everything into financial terms. But the danger with this kind of think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Kingdom work is that we can impose human limits on what God can do. We might say things like, it would be great to

expand the children's ministry but we can't afford to. Or we could send a missionary out into the countryside but how ever will be afford to provide for their needs?

We might try instead to trust God and rely upon Him to provide what is needed.

필립은 매우 실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빵을 사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추산으로는 적어도 이백 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따라서 200 데나리온은 약 8개월 동안의 일을 나타냅니다. 이 엄청난 돈으로도 각 사람에게 약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토록 많은 양의 빵을 파는 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대한 빵집이나 체인 빵집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필립의 대답은 우리가 사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재정적 조건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생각, 특히 왕국 사업과 관련하여 위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인간의 한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시골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분께 의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8 One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id to Him, 9 "There is a lad here who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what are they among so many?"

Here we have Andrew speaking up. He has found a small boy who has brought his picnic with him. It was a meagre meal indeed. Five "loaves," most probably round flat biscuit like cakes, and two small most likely pickled fish. Barley was a simple food, the food of the poor. Andrew seems almost embarrassed about speaking up. What good is such a meagre amount of food amongst so many. God as we know often delights in taking small, unimportant things and magnifying them greatly. Let's see what happens.

여기에서 앤드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풍을 가지고 온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허접한 식사였습니다. 다섯 개의 "덩어리", 아마도 케이크처럼 둥글고 평평한 비스킷과 두 개의 작은 절인 생선일 것입니다. 보리는 단순한 음식,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Andrew는 말하는 것이 거의 창피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 사이에 그렇게 적은 양의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종종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취하셔서 크게 확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0 Then Jesus said, "Make the people sit down."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about five thousand. 11 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to those sitting down; and likewise of the fish, as much as they wanted.

Jesus is now ready to carry out His plan. As is usual with the Lord there is no great fanfare or calling people's attention to what is to be done. Human beings often like to show off and be the centre of attention. Not so our Lord. There was no magic words or waving about of hands. He simply told the disciples to sit the people down. It was a nice grassy area. The perfect spot for a picnic. Maybe Jesus got them to sit down to stop them rushing forward when they knew that food was available. I think it shows us that Jesus was fully in control and knew exactly what He was doing. John tells us that this crowd comprised 5000 men. This was the customary way that crowds were numbered in those days. It means of course that there were far more than 5000 people present. Perhaps a figure of between 8 to 12 thousand.

Then Jesus took the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and gave thanks to God for them. A common

form of Jewish thanksgiving went as follows;

“Blessed art th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est forth bread from the earth.”

Perhaps these were the words Jesus used or something very similar. This prayer of thanks should serve as a good example to us. We should always acknowledge and be thankful to God who provides all we need. All that we have comes through His grace. How often do we sit down to enjoy some delicious food and neglect to thank God for His goodness.

As I was putting this sermon together I tried to imagine the scene. Clearly the multiplication of the bread and fishes took place whilst Jesus thanked the Father. I want to speak for a moment on how some liberal scholars understand what took place here. Liberal scholars are very uncomfortable with the supernatural elements of the bible. They would like to explain them away with rational explanations. So what do they say about Jesus feeding the multitudes?

There are a number of answers they give. One of these is that this was a miracle that took place in people's hearts. The people had food but were selfishly keeping it to themselves.

When they heard Jesus words they felt compelled to share with one another and everyone got to eat. Naturally the details of the story make this seem highly unlikely. It would hardly come across to the people as a great miracle if they simply shared their “kimbap” with their neighbours.

Another way they try to explain away this miracle is to say that it should be seen as a sacramental meal, rather like the Lord's supper. Each person got just a tiny bit to eat. Again the evidence John gives makes this idea seem nonsense. The people would have gone away hungry and unimpressed.

The truth is that this was simply a miracle. Something only God could do. Imagine what a thing it would have been to witness. The disciples coming forward and taking the food and then giving it out to the people. Perhaps some harboured doubts that this small supply would feed all these people. But the supplies never diminished, more and more appeared to be distributed. John emphasises this point. There was not just a small amount for each person. In reality each person ate as much as they wanted. John wants us to appreciate the extravagance of God's grace. Let's see what happens next.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계획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큰 광파르나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종종 과시하고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법의 말이나 손을 흔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했을 뿐입니다. 잔디가 좋은 곳이었습시다. 피크닉을 위한 완벽한 장소.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앉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하시고 그가 하고 계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무리가 500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중의 수를 세는 관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5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8-12,000 사이의 숫자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보리 떡과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감사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땅에서 떡을 내어 주시는 만유의 왕이시여 주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거나 매우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동안 떡과 물고기의 번식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몇몇 자유주의 학자들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

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지만 이기적으로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로 나누어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이것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김밥'을 이웃과 나눈다면 큰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이 주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성찬식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수 있는 양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John이 제시한 증거는 이 아이디어를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프고 감동받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목격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이 적은 양의 공급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이 분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1인당 적은 금액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치스러움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2 So when they were filled,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so that nothing is lost.” 13 Therefore they gathered *them* up,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of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were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John provides some extra detail here in verse 12 to emphasize the amazing nature of this miracle. After everyone had eaten their fill there was still plenty left over.

We are not talking about crumbs here but large pieces of bread that Jesus had torn apart. God gives us much but He does not want us to be wasteful. Therefore Jesus wanted to gather up the remains. These were gathered up by the disciples in twelve baskets. So at the end there was more than what they began with. What happened to these remains? We are not told but I think we can safely assume that they were used to help the poor and hungry. Is there some significance with their being 12 baskets? Some may argue that it simply reflects that the 12 disciples were collecting the remains. However I think it is significant. All four gospels highlight the number. The significance it as follows, Jesus has enough to supply the needs of the 12 tribes of Israel. They sought a savior, or someone to provide what they needed and here He was. The one sent to provide for all their needs. Let us finish up by seeing how the story concludes.

요한은 이 기적의 놀라운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12 절에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나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찢으신 큰 빵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유해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시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적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고 안전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바구니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12 제자가 유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그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 지파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세주, 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을 제공할 누군가를 찾았고 그분이 여기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sign that Jesus did,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As I have said many times the signs were always performed with a purpose. Jesus didn't multiply the loaves and fishes simply to feed hungry people. He did it to make them sit up and ask questions. Who could possibly take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turn them into such bounty? Only God could do such a thing. So those who have witnessed this miracle think about it and come to a logical and reasonable conclusion. Namely that this must be the prophet that Moses had predicted would come into the world. The reference here is to chapter 18 of Deuteronomy. In this chapter Moses talks about God promising to provide a prophet like Moses. No doubt many at the time made the connection between Moses providing manna in the wilderness and Jesus providing bread in an isolated place. Sadly many in the crowd were not following Jesus because they wanted to hear God's revelation to His people.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the bread. They wanted what Jesus provided but they didn't want Him.

It is easy for us to be critical of these people, but aren't we often just like them. Don't we just want Jesus for what He can give us. Our calling is to love Jesus for who He is. He is our Lord and our God.

We are to love, follow and obey Him with no expectation of receiving anything except His free gift of salvation. That gift which He secured through His sacrifice for us on the cross is available to all who confess, repent and put their faith in Him alone for salvation. He truly was the one God sent to save His people.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표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떡과 물고기를 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일어서서 질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것처럼 푸짐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모세가 세상에 오리라 예언한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은 신명기 18 장입니다. 이 장에서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는 것과 예수께서 외딴 곳에서 빵을 공급하시는 것을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군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공하신 것을 원했지만 그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지만 종종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확보하신 그 선물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께만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four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Are we generous with God's blessings?

Human beings can at times be a little sparing, or at times selfish and mean when it comes to giving to others. I'm sure we can all think of people who are not very generous with their time, money or possessions.

Sometimes these people can be quite well off financially. You have probably heard the expression that says rich people are rich because they are very careful with their money. The boy in today's story had a meagre meal with him. Probably, after a long day of walking he was looking forward to eating the loaves and fishes. But when Jesus asked him to give it up he willingly did so. He gave it all up and held nothing back. So my challenge for you today is to think how you can bless others with what God has gifted you. No matter how much or little we have we can do good, and please God with our generous hearts.

인간은 때때로 남에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비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간, 돈 또는 재산. 때때로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부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소년은 그와 함께 적은 양의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긴 하루를 보낸 후 빵과 생선을 먹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과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적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Jesus works through His disciples

Jesus could have done today's miracle in any way He desired. He could have snapped His fingers and a plate of food could have appeared in front of every person. He could have had the bread fly through the air into the people's hands. The reality was that He chose to work through His disciples. They distributed the bread to the seated people. God still chooses to work through His followers today. He does not need us, but He delights to work through us. All it requires is our willing obedience. Let us think how we can further God's Kingdom today.

예수님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길 수 있었고 음식 접시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빵이 공중을 통해 사람들의 손으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 Always be thankful

The New Testament is full of people thanking God before meals. What a good and healthy practice this is. It is right and proper that we thank God each and every day for His kindness and mercy towards us. It also means at times realising how greatly blessed we are. I can think about people who moan that they do not live in a bigger apartment or have a newer car. Let me remind you that according to a 2018 World Bank study 3.4 billion people struggle to meet basic needs. That means almos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does not have the plenty that we enjoy. Compared to them we are incredibly rich. Let us then always be thankful for God's blessings.

신약성경은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건강한 습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더 큰 아파트에 살지 않고 새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은행 연구에 따르면 34억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시다.

4 Trust that God can use whatever we give in mighty ways

We are all guilty at times of putting limits on God. We think that our small church cannot grow or have an impact on our community. Or that the small amount we can give to missionary groups isn't really helping them much. But the truth is that God simply wants willing and joyful givers. He can take whatever is given and use it in mighty ways. Let us then be careful not to limit God or allow our negative human thinking to dampen our enthusiasm.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 유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교회가 성장하거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선교사 그룹에 줄 수 있는 적은 양은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단순히 기꺼이 드리고 기뻐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취하셔서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부정적인 인간적 생각이 우리의 열정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